

학원 다닌 광주 학생 10명중 9명 “성적 올라”

초등생 81.7%, 중학생 73.5%, 고등학생 61.6% 사교육 받아
평균 수강시간 1주일 11시간...공교육 불신에 학원·과외 의존

광주지역 학생 3명 중 2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이 학교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광주 여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학생 생활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생 67.6%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년이 낮을 수록 사교육 의존이 강했다. 초등학생은 81.7%, 중학생 73.5%, 고등학생(일반고)은 61.6%가 사교육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구(72.8%)와 남구(71.0%)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높

았다. 광산구는 57.6%로, 서구에 비해 무려 15.2%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지역별 학력 격차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교육의 학교 성적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가량(88.0%)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 49.2%는 '많은 도움'을, 38.8%는 '약간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1주일 평균 사교육 수강시간은 11.1시간이며,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생이 13.5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초등학생 12.31시간, 고교생 7.39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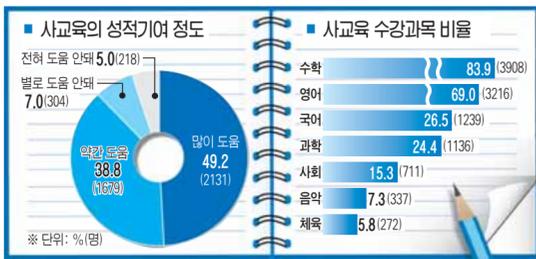
광주시내 5개 자치구 중 수강시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로 11.88시간이었으며 서구 11.20시간, 동구 11.

14시간, 광산구 10.66시간, 북구 10.62시간이었다.

수강과목으로는 10명 중 8명 이상(83.9%)이 수학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의존도가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 영어(69%), 국어(26.5%), 과학(24.4%), 사회(15.3%) 음악(7.3%), 체육(5.8%), 제2외국어(5%), 미술(3.3%) 순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부모의 권유'(62.8%)와 '본인이 원해서'(56.2%)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부모 권유'(42.3%)보다 '본인이 원해서'(76.2%)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 형태로는 학원이 83.5%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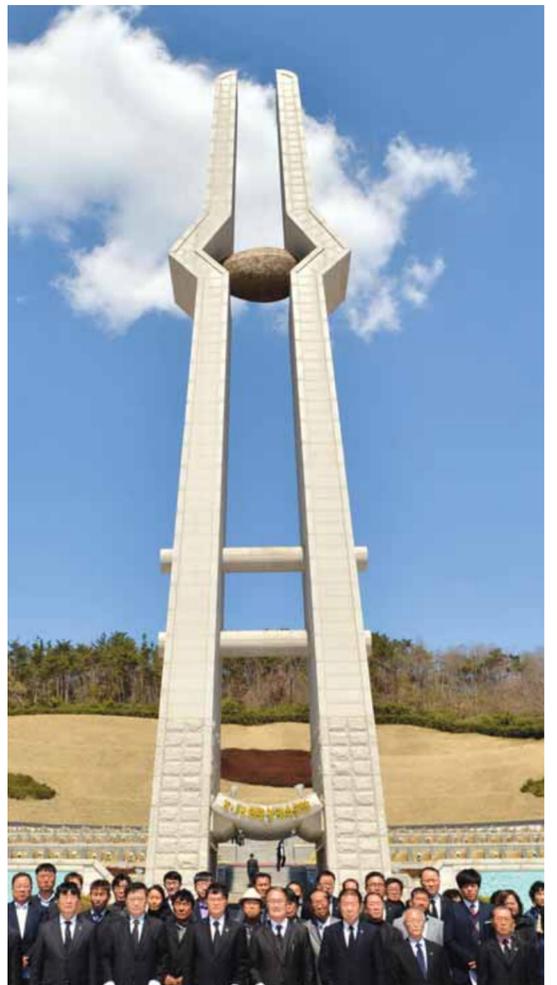
장 많았고, 과외(19.6%), 학습지(12.6%), 인터넷·TV강의(9.2%)가 뒤를 이었다.

사교육에 의존한 성적 향상에 대해 지역 교육단체는 공교육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사무국장은 "학업성취도 하락으로 인한 공교육 불신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사교육으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광주여성재단은 "사교육 과목이 수학·영어·국어 등 주요 교과목에 집중돼 있다"며 "교과교실제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초·중·고 74개 학교 7005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건강, 가치관 등 11개 영역을 조사했다. /백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3 오일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
2013년 4월 11일(목)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KTX 전라선 운행 하루 18회로 증편

KTX 호남선과 전라선 운행횟수가 경부선의 30%에도 못미친다는 지적(광주일보 10일자 1·3면)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측은 11일 전라선 KTX 운행횟수를 하루 왕복 12회에서 18회로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전라선 증편 운행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20일부터 이뤄지며, 막차 시간도 오후 7시20분에서 9시로 늦춰진다.

한국철도공사 정장영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주승용·민주·여수)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오는 20일부터 증편되는 6회의 전라선 KTX열차는 올해 말까지 임시열차를 투입해 운행하며, 향후 운행실적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증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평균 이용자 수가 많음에도 턱 없이 부족한 열차운행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을 홀대하는 것이고, 철도공사도 수익증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열차는 공급이 많을 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전라선을 왕복 18회로 증편했지만, 호남선 수준으로 증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호남선 역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대폭 증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통 9년째를 맞은 KTX는 경부선 하루 154회, 호남선 44회, 전라선 12회가 운행되면서 '호남 푸대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 77% 공시지가만 800억 환경부 올 매수 예산 달랑 20억 사유지 다 사려면 40년 걸린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이 77%로, 기준지 공시지가만 800억원에 달해 사유지 매수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사유지 매수 예산이 20억원에 그쳐, 공시지가로만 매수하더라도 전체 사유지 매수까지는 4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광주시의회 김선호 의원(교육위원·서구)에 따르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75.425km로, 전남 지역을 제외한 광주권 면적 47.6km 가운데 사유지가 36.6km(77%)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임야는 34.4km, 전답은 1.4km, 대지 0.12km 등이다. 이는 전국 국립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 34%에 비해 높은 수치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는 총 2723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지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795억원대에 달한다.

환경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유지 매수계획을 수립해 매년 30~5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지만, 올해 사유지 매수 예산은 21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사유지 매수 예산이 올해처럼 매년 20억원 정도에 그칠 경우 사유지 매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 토지소유자들의

청원도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가 장단기 매입 계획을 수립해 시급성이 있는 사유지부터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 특별한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자연보존지구(5.5km)는 전체가 국·공유지이며,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지구(35.8km)와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등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무등산 사유지의 우선 순위를 정해 매입하고,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5·18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 11일 광주 서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출범식엔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2013 오일 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확정·발표한 뒤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http://art.kjmedia.co.kr | 062. 220. 0541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58 호남예술제
1956-2013 제58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3. 4. 24 | 수 | ~ 5. 24 | 금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부분 2013. 4. 10 | 수 | ~ 4. 17 | 수 |

미술·작문부분 2013. 5. 13 | 월 | ~ 5. 16 | 목 |

주최 | 61 광주일보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